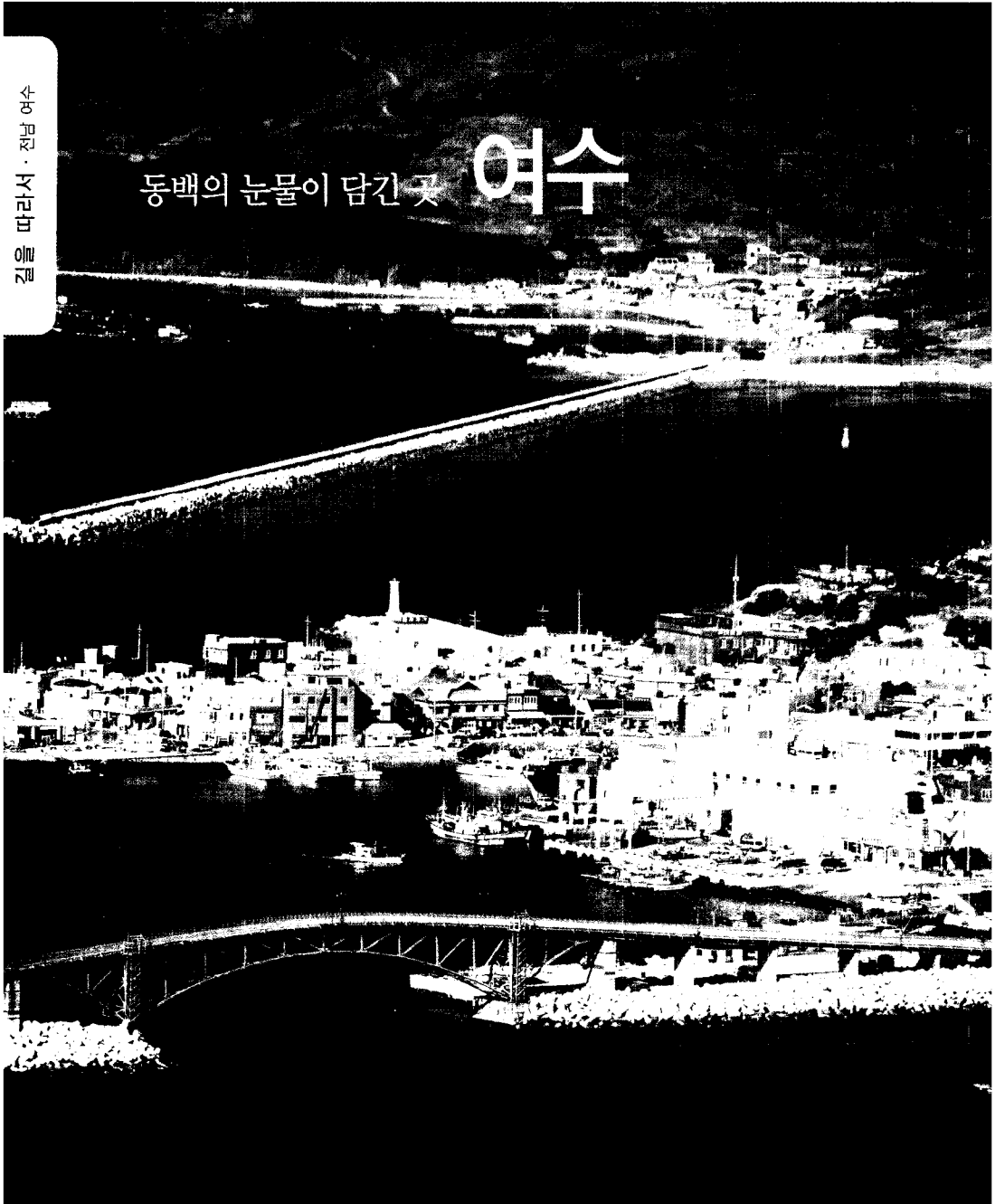


동백의 눈물이 담긴 곳 여수



동백은 추운 겨울을 지나 움츠러든 사람들에게 따스한 봄이 다가왔음을 제일 먼저 알려 주는 꽃이다. 유난히 푸른 바다를 배경삼아 피어나는 탓에 붉디붉은 꽃이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이 꽃은 송이를 활짝 피우고 나면 그대로 땅에 떨어져 시들어든다. 때문에 나무 아래 수북이 쌓인 동백꽃은 서러울 만큼 화사한 봄별을 마중하러 나온 봄의 눈물인 듯 보인다. 이처럼 화사한 봄별과 동백을 만나러, 전남 여수로 떠나보자.

글과 사진_한은희(여행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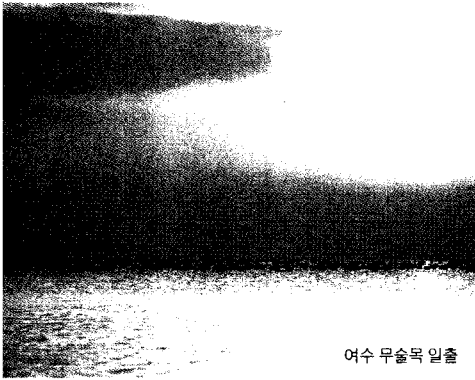
여수의 3월은 차나무과에 속하는 상록수 동백 나무와 함께 시작된다. 허세를 부리지도, 변하지도 않고 늘 그 모습 그대로 피고 지는 동백의 꽃말은 '신중'. 유난히 반짝이는 푸른 잎이 겨울을 삭막하지 않도록 해주어 여행자들에게는 늘 반가운 나무이다.

동백나무의 아름다움은 뭐니뭐니 해도 붉은 꽃이다. 작은 몽우리가 터져 붉은 잎이 펼쳐지면 그 안에 숨어있는 노오란 꽃술이 수줍은 듯 얼굴을 내민다. 그러다 꽃이 질 때는 꽃송이째로 툭 떨어져 또 다른 아름다움을 만들어 낸다. 꽃이 지고서도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동백뿐 아닐까 싶다.



오동도 동백

여수는 '동백의 수도'라고 불려도 허세가 아닐 만큼 많은 동백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그 중심은 방파제로 이어져 연속도가 된 오동도와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 만나는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이다. 그중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오동도를 먼저 둘러보자.



여수 미술목 일출



여수항 야경

여수에서도 가장 먼저 만개한다는 오동도의 동백을 만나려면 오동도등대로 가야 한다. 등대를 둘러싸고 동백군락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데, 등대 입구에는 작은 간이차집이 있다. 동백나무 아래 만들어진 쉼터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꽃 감상을 하노라면 조용히 기다리던 동백나무 잎사귀만한 동백새가 꽃을 찾아와 꿀을 먹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작은 동백새를 괴롭히는 직박구리에 대한 할머니의 안타까움도 들을 수 있다.

“꽃 찍으러 왔는가? 거 찍어다 모혈라고 자꾸 사람들이 오능가 몰려. 저기 저 작은 새 보이제? 저 작은 새가 꿀을 먹어야 하느디 저어기 저 큰놈이 자꾸 방해를 한당께. 덩치는 커다란 것이 왜 작은 새들을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것어.”

쉼터의 둥근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그릇에 떨어진 동백을 동그랗게 띄워 조금이라도 더 꽃피우게 한 할머니의 고운 마음을 듣게 되는 말이다. 입구 광장에는 조각공원과 휴게시설, 오동도 유람선 선착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서 유람선을 타고 오동도와 돌산대교, 가까운 섬들을 돌아보는 것도 특별한 재미이다. 광장 왼쪽에는 거북선과 판옥선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만일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도 없었을 것)”라는 글이 적힌 비석이 있다.

오동도를 나와 본격적인 동백여행을 위해서는 여객선터미널로 가야 한다. 그곳에서 거문도행 배를 탈 것. 여수에서 남서쪽으로 114.7km 떨어져 있는 거문도는 다도해상국립공원으로 동도와 서도, 고도 등 세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세 섬이 자연스레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그 안쪽의 바다가 넓어 기후에 상관없이 조업을 할 수 있는 천혜의 바다여건을 가진 것도 거문도의 장점이다. 하지만 별다른 시설 없이도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항구인 탓에 일찍부터 서구열강의 침입을 받아 시련의 세월을 보내기도 했다. 그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고도의 영국군묘지이다.

거문도에서 동백꽃을 만나기 위해서는 서도 수월산 정상에 있는 거문도등대로 가야 한다. 거문도 여객터미널에 도착해 거문도 택시인 봉고를 타고 등대 가는 길 입구인 무녕이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갈 것. 무녕

이는 서도와 수월산을 잇고 있는 바윗길로 파도가 높을 때는 물이 넘어 다닌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무녕이를 넘어가면 수월산으로 올라가는 동백산책로가 이어진다. 산책로 오른쪽은 절벽이지만 동백나무가 울창해 잘 느낄 수 없다. 동백꽃 산책로를 따라 약 20분을 걸어가면 해발 196m의 수월산 정상에 1905년에 세워진 거문도등대가 나온다. 이곳에 맑은 날이면 동쪽으로 28km 지점에 자리한 백도를 볼 수 있다는 관백정이 있다. 백도를 보지 못한다 해도 이곳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 흐르는 시간을 멈춰놓은 듯 아름답다. †



거문도 등대로 이어지는 동백꽃 산책로

여 / 행 / 정 / 보

찾아가는 길

경부, 천안·논산고속도로를 지나 호남고속도로로 진입, 순천C로 나와 여수행 17번 국도를 이용하면 된다. 약 5시간 소요.

맛집안내

여수시 중앙동로터리 진남관 건너편 골목 안에 자리한 구백식당(061-662-0900)은 20년 넘게 손맛을 이어온 전남도 별미집이다. 고기 맛이 좋아 셋서방에게만 준다하여 셋서방고리라 부르는 금홍생이 구이와 서대회가 맛있 다. 거문도의 삼도식당(061-665-5946)은 찹쌀을 부드럽게 불려 소리와 미늘을 넣고 끓여내는 소리죽을 잘하는 집이다.



잠잘 곳

여수에는 모텔급 숙소가 많이 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있는 여서로터리와 여수시청이 있는 여천역 인근에 깨끗한 모텔들이 모여 있다. 가격은 3만원에서 3만5000원 선

• 여행문의 (주)남해안투어 1588-3848, namda.co.kr



거문도 옛 등대